

# 눈으로 살펴보는 제주잠녀 숨비소리

제주해녀박물관 30일까지 '해녀노래로 읽는 제주 여성의 삶'

등록 : 2010년 06월 06일 (일) 17:45:11  
최종수정 : 2010년 06월 06일 (일) 17:45:11

고미기자 ✉ popmee@hanmail.net



▲ 전시 사진

물건을 찾아 거센 파도를 밀어내며 노를 저어가면서 제주 잠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.

제주 잠녀들의 거친 숨비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.

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은 「제주해녀노래집-이여 이여 이여도사나」 발간에 이어 제주 잠녀의 일상을 맹글에 담은 사진을 선보이는 '해녀 노래로 읽는 제주 여성의 삶' 전시회를 준비했다.

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서는 1910년부터 1980년까지 잠녀와 제주 여성의 삶이 잘 표현된 흑백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. 해녀박물관 뿐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, 도민속자연사박물관 등에 소장작과 도내 사진가 서재철·강만보씨의 작품들이다.

익숙한 바다라도 물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커진다. 행여 낯선 바다에서는 그 두려움에 무게가 더해져 소리 역시 남다르다.

사진 자료 외에도 해녀노래집에 수록된 노래 중 제주 잠녀의 노동과 정서가 담긴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.

“...어떤 사람 팔제 조양/노픈 집에 살건마는/우리야 인생 두렁박 인생/언제면 끝이 날고...” “구쟁기랑  
잡거들랑/닷섬만 잡게호곡/전복이랑 잡거들랑/여든섬만 잡게홍서/몫사는 우리팔자/흔번아주 고쩌보  
게...”

삶의 고달픔을 풀어낸 팔자타령을 넘어 힘든 노동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려 한 지혜도 엿보인다. 문의  
=710-7774.